

# “막장의 신기원? 고전은 더해요”

“광태가 너무 비호감으로 그려지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이런 걱정을 하는 것부터 잘못됐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18일 종영한 KBS 2TV 주말극 ‘오케이 광자매’에서 막내 광태 역으로 열연한 배우 고원희(27)는 최근 서면 인터뷰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냥 대본을 받고 대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태의 당찬 성격과 짝은 거짓말, ‘내로남불’ 등 때문에 초중반에는 시청자들에게 호감 있게 비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 같다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다. KBS 주말극의 꽃이 막내커플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꽤 마음고생을 했을 법했다.

그는 그래도 광태가 진심으로 이해했던 부분이 있다고 묻자 “과정은 좋다고 말할 수 없지만 가족을 위한 마음에는 공감이 됐다”고 말했다.

‘오케이 광자매’ 속 주인공 세 자매는 결국 모두 혼외자였다. 이러한 사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철없던 세 딸도 조금씩 철수(윤주상 분)의 사랑을 깨달아갔다.

고원희는 “전개를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지만 시청자들처럼 짐작은 했다. 계속해서 나치범(정승환)이 광태 주위를 맴도는 시점부터라며 “설마가 사실이 되니 그 심정이 가능되지 않아 주변 사람들과 작가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작가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사기꾼의 자식이라는 게 치가 떨릴 정도로 싫어야 한다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오케이 광자매’는 이처럼 후반부 출생의 비밀이 다 드러나면서 ‘막장’의 신기원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배우 고원희.

고 더욱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KBS 주말극에 출연한 것이 영광이었다고 강조했다.

“처음 KBS 주말드라마를 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특히 어머니께서 가장 기뻐해 주셨죠. 또 긴 작품을 오랜 호흡으로 연기하는 것이 있어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게 됐어요. 훌륭한 선생님, 선배님과 매주 같이 대본에 대해 고민하고 연기하다 보니 꼭 학교 다닐 때처럼 학구열이 불타올랐어요.”

문영남 작가와의 첫 만남에 대해서는 “대본에 확실한 답이 있다는 게 특별한 경험이었다. 그 답을 맞추는 과정이 너무 즐거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로는 철수의 ‘아닌 건 아닌겨’를 꼽으며 “깃가에 계속 맴돌아서 나도 모르게 실생활에서 쓰고 있더라”고 웃었다.

2010년 광고모델로 데뷔한 고원희는 그동안 ‘궁중잔혹사 꽃들의 전쟁’, ‘왕의 얼굴’, ‘최강배달꾼’, ‘오라차차와 이키기’, ‘피프’ 등 다양한 작품에서 주·조연을 맡아 활약해왔다.

벌써 데뷔한 지 10년이라는 말에 그는 “아직도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점에서 돌이켜 보면 잘 걸어왔다고 생각한다. 정말 장르 불분하고 열심히 해왔구나 싶다”며 “어떤 배우로 남고 싶다는 구체적인 생각은 없고 계속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의심하면서 나아가갈 것 같은데, 믿고 보는 배우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근까지 밝은 연기를 주로 해왔는데 여태 해온 연기와는 상반되는 연기도 해보고 싶네요. 그런 기회가 온다면 너무 행복할 거예요.” /연합뉴스

## ‘오케이 광자매’ 고원희 “대본 안에 답 있다 믿죠” “철수 대사 ‘아닌 건 아닌겨’ 깃가에 계속 맴돌아”

했다. 이에 대해 고원희는 “사실 고전을 들 여다보면 더한 스토리가 많다”고 웃으

며 “다만 직접 겪어보지 못한 것을 연기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 매개체를 통해 간접 경험을 하

## 내 아이의 성과 지능의 비밀

MBC ‘다큐플러스’ 오은영 리포트 3부작 내달 첫방

MBC TV ‘다큐플러스’는 다음달 1일부터 총 3부작으로 ‘국민 육아 멘토’ 오은영 박사와 함께하는 ‘오은영 리포트’를 방송한다고 예고했다.

‘오은영 리포트’에서는 부모조차 몰랐던 내 아이의 성(性), 그리고 지능의 비밀에 대해 알아본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의 자위행위를 목격했다고 응답한 보육 교사는 25%에 달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해당 이슈를 외면하고 싶어한다. 자기 몸을 탐색하던 아이가 다양하게 마주하는 성과 관련한 호기심에도 어른들은 곤란해한다.

방송에서는 오은영 박사가 내 아이의 성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짚어주고 부모가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또 유튜브 등을 통해 청소년의 음란물 접근이 너무 쉬워지고 ‘랜선 연애’도 자유로워진 시대, 부모의 적극적인 성교육이 일찍부터 이뤄져야 하는 부분도 짚어본다.

아울러 정서지능과 집중력의 관계, 긍정적인 정서와 성적 간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훈련과 연습을 통해 정서지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1일, 8일, 15일 오후 8시 50분 방송. /연합뉴스



MBC TV 새 예능 파일럿 프로그램 ‘가나다같이’ 출연진.

/연합뉴스

## 전현무-홍진경의 우리말 예능

MBC ‘가나다같이’ 내달 방송

MBC TV는 다음 달 한글날 연휴를 맞아 새 예능 파일럿 프로그램 ‘가나다같이’를 특집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잘 몰랐던 우리말을 퀴즈로 맞춰보는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으로, 방송인 전현무와 홍진경, 개그맨 양세

찬, 가수 이홍기, 이찬원 등이 출연한다.

‘가나다같이’는 메타버스 등을 이용해 힌트를 주는 등 신선한 진행 방식과 신개념 인공지능(AI) ‘알리’, 움직이는 세트장을 통해 기존 우리말 퀴즈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꾀했다.

다음 달 9일 오후 5시 4분, 11일 오후 10시 30분 방송. /연합뉴스

## JTBC 간판 예능 ‘아는형님’ 300회

아이돌부터 스포테이너까지

많은 사랑받은 전학생 소개

JTBC는 간판 예능 ‘아는 형님’이 다음 달 2일로 방송 300회를 맞았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5일 시작한 ‘아는 형님’은 MC 강호동, 서장훈, 김영철, 이수근, 김희철, 민경훈, 이상민과 전학생(게스트) 간 유쾌한 호흡을 바탕으로 JTBC 최장수 예능으로 사랑받고 있다.

대세 아이돌부터 배우, 스포츠 선수들까지 다양한 스타들이 게스트로 거쳐가 화제를 모으기도 한다.

제작진은 300회를 맞아 그동안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았던 형님학교 전학생들을 소개했다.

“대세 아이돌”은 단골이다. 블랙핑크 리사의 ‘게 홈’ 영상은 무심한 표정과 중독성 강한 안무로 현재까지

누적 조회 수가 9,000만 뷰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본업을 벗어나 예능 나들이에 나선 배우들의 새로운 모습도 매번 화제가.

신드롬을 일으켰던 JTBC 드라마 ‘SKY 캐슬’의 주역 김서형, 오나라, 김혜윤은 ‘아는 형님’에서 드라마 뒷이야기를 독점 공개하고 남치는 흥과 끼를 뽐내 주목받았다.

세 배우들이 출연한 166회는 시청률 10.6%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가대표 스포츠 스타들과 예능 선수형님들의 만남도 화제였다.

2020 도쿄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펜싱 어벤저스’ 김정환·구본길·김준호·오상욱 선수편, 월드컵 배구 선수 김연경 편, ‘몽쳐야 찬다’에 출연한 허재·이형택·김병현 편 등이 사랑받았다.

“아는 형님”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40분 방송한다. /연합뉴스

# “어떤 맛 꺼낼지 모를 초콜릿 상자”

첫 솔로 정규 발매한 양요섭  
“새로운 시도 통해 색 찾았파”

“초콜릿 박스에서 꺼내는 초콜릿이 어떤 맛인지 모르듯이 ‘음? 양요섭이 이런 음악도 한다?’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13년 차 보이그룹 하이라이트의 메인 보컬 양요섭이 솔로 가수로 돌아왔다. 양요섭은 솔로 정규 1집 ‘초콜릿 박스’를 발매했다.

양요섭은 2012년 첫 미니앨범 ‘더 퍼스트 콜라주’를 통해 솔로 가수로 데뷔했으며 2018년 미니 2집 ‘백’ (白)을 냈다. 정규앨범을 내는 건 솔로 데뷔 9년 만에 처음이다.

그는 최근 서면 인터뷰에서 “만약 솔로 앨범을 내게 된다면 이번엔 꼭 정규작을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수록곡들이 각각 다른 맛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작업했다”고 소개했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아서 무엇을 집어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영화 ‘포레스트 검프’ 명대사에서 앨범 이름을 떠올렸다. 여러 가지 초콜릿처럼 다채로운 맛을 내는 12곡이 실렸다.

“솔로 앨범에선 처음으로 여성 아티스트와 듀엣곡도 넣었고, 타이틀곡은 어두운 느낌으로 콘셉트를 잡았어요. 자작곡 작업도 많이 했고, 전에 선보이지 않았던 장르의 곡도 수록했구요.”

타이틀곡 브레인(BRAIN)에 대해서는 “템포가 빠르고 휘몰아치는 느낌의 노래라서 처음에는 라이브를 하면서 안무까지 소화하기가 버거웠다”며 “안무를 때 호흡을 뚫어 익히려고 줄넘기를 하면서 라이브 연습을 했다”는 일화를 전했다.

앨범명과 같은 수록곡 ‘초콜릿 박스’에는 양요섭의 초등학교 동창인 래퍼 dR-1(박준원)이 피쳐링한 것이 눈길을 끈

다. 두 사람은 초등학교 특별활동부 사물놀이반에서 함께 활동하다가 연예계에서 재회한 인연이 있다.

이외에도 프라이머리가 참여한 ‘척’, 민서와 부른 ‘느려도 괜찮아’, 쫄과 호흡을 맞춘 ‘체인지’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지원사격에 나섰다.

양요섭은 ‘꽃샘’을 비롯해 5곡의 작사, 작곡에 참여했다. 특히 ‘꽃샘’은 의무경찰 복무 시절 양요섭이 개인적으로 느꼈던 감정이 진솔하게 담겨 있다.

“추운 겨울에 온몸을 떨릴 뻔해서 근무를 서고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떠올랐고 힘들었어요. 연예인이어서, 아티스트로서 나는 이제 어떤 행보를 걸어야 할까, 두렵고 조금했던 그때의 마음을 담았죠.”

양요섭은 솔로 가수로써 “계속 제 색깔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제 목소리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가수 양요섭.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9월 23일 (음력 8월 17일)

<p>子</p> <p>48년생 오해가 눈덩이처럼 커진다. 60년생 원수라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72년생 아름다운 운명은 조용히 찾아온다. 84년생 노력한 보람이 있다.</p>	<p>丑</p> <p>49년생 떨어지는 낙엽에도 조심하라. 61년생 절대 시비에 휘말리지 말라. 73년생 작지만 실속 있는 일이 들어온다. 85년생 이유 없이 호의를 베풀지 말라.</p>	<p>寅</p> <p>50년생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62년생 못지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 74년생 시작은 초라하지만 끝은 장대하리라. 86년생 사랑한다면 믿어주자.</p>	<p>卯</p> <p>51년생 사소한 오해가 반목을 불러일으킨다. 63년생 현명한 사람은 겸손한 법이다. 75년생 이직을 계획한다면 재검토하라. 87년생 금전 손실이 약간 있겠다.</p>
<p>辰</p> <p>52년생 좋은 일이 생기겠다. 64년생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76년생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88년생 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실수를 할 수 있다.</p>	<p>巳</p> <p>41년생 외출을 삼가고 매사에 조심하라. 53년생 행운이 함께하는 좋은 날이다. 65년생 웃으면 복이 찾아온다. 77년생 큰 꿈을 꾸는 사람은 대ભ해야 한다.</p>	<p>午</p> <p>42년생 잔치집에 초대받는다. 54년생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힘든 여행이다. 66년생 순리에 역행하면 고생길에 접어들겠다. 78년생 실속 없이 바쁜 날이다.</p>	<p>未</p> <p>43년생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 55년생 하는 일마다 잘되는 날이다. 67년생 명분 없는 싸움은 절대 하지 말라. 79년생 절대 잘난 척 하지 말라.</p>
<p>申</p> <p>44년생 주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 56년생 귀인을 만나서 중요한 정보를 얻는다. 68년생 표창 받을 일이 있겠다. 80년생 직장에서 인기가 높아진다.</p>	<p>酉</p> <p>45년생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사는 것이 이롭다. 57년생 내 앞 길에 장애물은 없다. 69년생 횡재수가 있겠다. 81년생 애정 문제로 속상할 일이 있겠다.</p>	<p>戌</p> <p>46년생 신신놀음이 따로 없구나. 58년생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상하라. 70년생 일단은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82년생 오늘은 그냥 무조건 참자.</p>	<p>亥</p> <p>47년생 애꿎은 나이를 원망하지 말라. 59년생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다. 71년생 실력보다 저평가를 받는다. 83년생 불편한 마음을 내색하지 말라.</p>